

남한 내 탈북자들의 의식 및 생활 만족도 연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¹ 대외경제정책연구원,² 충북대학교 심리학과³
전우택¹ · 윤덕용² · 엄진섭³

The Way of Thinking and Satisfaction Level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Woo Taek Jeon, MD¹, Duk Yong Yoon, PhD² and Jin Sup Um³

Department of Psychiatry,¹ Medical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² Seoul,
Department of Psychology,³ Chonbuk University, Chungju, Korea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tudy the way of thinking and satisfaction level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on various topic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Methods : Direct interview was performed for 553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44 items of life satisfaction were rated. Satisfaction level was rated on a 5 point scale (1-unsatisfactory and 5-fully satisfied).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of the factors were performed.

Results : The average level of satisfaction was 3.39. Relatively high satisfaction items were adjustment of their children, family life, and residence area. But relatively low satisfaction items were psychological and mental area, leisure, and income. In governmental support systems, medical support was the most satisfactorily rated item, but financial support for settlement and support for employment or job training were the most dissatisfied. In the factor analysis, 44 items of satisfaction were grouped into 13 factors. The correlation of these factors showed that general satisfaction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atisfaction with housing, economic status, governmental support and lower degree of confusion on the sense of value. Confusion on the sense of value was high when defectors do not have close friends, hav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South Korean people, and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economic status. Religion did not hav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their sense of value. And self and social consciousness of the defectors were strongly correlated with the their employment status.

Conclusion : This result showed that th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correlated not only with material aspects, but also psychological and mental aspects. The results of study should be considered in helping defector to adjust to living in South Kore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4;43(1):93-104)

KEY WORD : North Korean · Defector · Adaptation.

서 론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남한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2년 한 해에만도 10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¹⁾ 이들 탈북자들은 북한 출신 사람들이 북한을 떠나 남한에 선택하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통일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통일 이후 북한 출

접수일자 : 2003년 9월 25일 / 심사완료 : 2003년 11월 6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Woo Taek Jeon, M.D. Department of Psychiatry, Medical School,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 +82.2-361-5470, Fax : +82.2-313-0891

E-mail : wtjeon@ymc.yonsei.ac.kr

본 연구는 2001년도 통일부 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신 사람들과 남한 출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²⁾ 그 동안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많은 연구 보고들이 있었으며 그 대부분은 탈북자들의 남한 내에서의 경제적, 물리적 생활 적응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³⁻¹⁰⁾ 그에 비하여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어떤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남한에서의 그들에 삶에 대하여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연관된 연구로서는 탈북자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으며,¹¹⁻¹⁴⁾ 본 연구자가 1997년 그들의 생활 적응을 연구하면서 주관적인 적응 정도, 정체감, 정신 건강 등을 조사하여 보고한 바 있었다.¹⁵⁾ 실제로 난민이나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들어가 적응하고 살아가게 되는 데는 1차적으로는 물질적 적응을 하지만, 2차적으로는 공식적 사회 구조에 적응을 하며, 3차적으로는 사회문화에 적응을 하여 나간다는 보고가 있었다.¹⁶⁾ 그리고 그러한 사회문화에 대한 적응에 있어 새로운 이주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대한 유형 연구가 보고 된 바 있다.¹⁶⁻¹⁸⁾ 이와 연관하여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떤 적응 유형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 요인으로 몇 가지가 지적된 바 있다.¹⁹⁾ 첫째로 새로운 정착지 안에서 자기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적 배경과 특징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처리하는가가 이들의 적응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둘째,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 속에서 어떤 적응 과정을 겪고 있고, 의식의 체험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남한 사회에 동화, 통합, 분리와 차별 격리, 주변화 등을 어떻게 겪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들의 의식과 태도는 향후 이들의 적응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동 등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가지게 되는 의식과 만족도를 이해하는 것은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 사회 적응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통일 이후에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그동안 탈북자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첫째,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대규모 연구 대상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둘째, 탈북자들이 이러한 조사에 응하는 것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충실히 응답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의식 조사를 하는 항목과 구체적 질문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많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반적인 사회 의식과 남한 생활 만족도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담하여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고, 그 응답 결과 내용을 분석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응답을 요인 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의식 조사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그들에 대한 정부 및 비정부기관들의 지원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두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2000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탈북자 교육 기관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가서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 중 20세 이상인 293명 전원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본 연구의 참여에 구두로 동의한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응답을 한 사람은 총 200명으로 전체 대상 인원의 68.2%가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었다. 이들은 비교적 남한 생활을 한 기간이 짧은 사람들로서 연구팀의 조사자들이 직접 이들을 만나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응답을 받아 자료를 모았다. 조사기간은 2001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였다. 두 번째 집단은 80년부터 2000년까지 남한에 들어와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탈북자 총 1224명 중 18세 이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거주지 보호 담당관이 직접 탈북자들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을 받았다. 조사기간은 2001년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으며 총 35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총 대상자의 28.8%가 응답을 하였던 것이었으며, 이들은 남한 내 거주기간이 다양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총 553명의 탈북자들이 본 연구 설문에 응답하였다. 본 자료 조사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조사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남한 내 탈북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탈북자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개 영역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1)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남한사회 인식과 이해 ; 11문항), 2) 탈북자들이 남한 내에서 살고 있는 자기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탈북자의 자기인식 ; 5문항), 3)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경제적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경제사정과 전망 ; 2문항), 4)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살면서 가지는 다양한 측면의 만족도를 알아보았다(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 ; 17문항), 5) 탈북자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가치감과 방향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가치감 ; 4문항), 6) 탈북자가 스스로 북한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알

아보았다(북한 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의식 ; 6문항), 7) 통일 후 남북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물어보았다(통일 후 전망 ; 1문항). 따라서 설문은 총 7가지 영역에 총 46문항으로 설문이 구성되었다. 응답은 ‘매우 그렇다’를 5점, ‘어느 정도 그렇다’를 4점, ‘보통이다’를 3점, ‘별로 안 그렇다’를 2점, ‘전혀 안 그렇다’를 1점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관한 질문으로 성별, 연령, 북한에서의 학력, 남한에서의 현재 직장 상태, 종교 등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방법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t 검증(t test)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조사문항들에 대한 잠재적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분석결과 13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요인들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남한생활만족도’ 및 ‘가치관 혼란’과 고유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량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특징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징이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 553명에서 남자는 396명(71.6%), 여자는 157명(28.4%)이었으며 연령대 별로는 10대가 37명, 20대가 151명, 30대가 181명, 40대가 96명, 50대가 63명, 60대가 25명이었다. 북한에서의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가 351명(63.5%), 전문대 졸업이 83명(15.0%), 대학 졸업 이상이 108명(19.5%), 무응답이 11명(2.0%)이었다. 이들이 북한에서 받은 평균 교육 기간은 11.2년이었다. 남한에서의 직장 상태를 보면, 정규직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2명(23.9%), 임시직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2명(14.8%), 직장을 가지기 원하나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144명(26.0%), 기타(주부, 학생 등)가 195명(35.3%)이었다. 남한에서의 종교 생활을 보면 개신교가 330명(59.7%), 천주교가 20명(3.6%), 불교가 12명(2.2%), 종교 없음이 159명(28.8%), 무응답이 32명(5.8%)이었다.

Table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응답자 (명)	백분율 (%)
성별	남	396
	여	157
	합	553
연령대별	10대	37
	20대	151
	30대	181
	40대	96
	50대	63
	60대	25
북한에서의 학력	고등중학교 이하	351
	전문대졸	83
	대학졸업 이상	108
	무응답	11
남한에서의 직장	정규직	132
	계약직	82
	직장 없음 (실직)	144
	기타 (주부, 학생 등)	195
남한에서의 종교	개신교	330
	천주교	20
	불교	12
	종교 없음	159
	무응답	32
		5.8

의식조사 문항 응답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조사 문항들의 빈도(백분율)와 평균(표준편차)이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를 데리고 남한에 들어 온 탈북자들만 응답하도록 요구한 v 28, 29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에 대한 무응답율이 대부분 5% 이하로 나타나 비교적 성실한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평균 점수가 4점을 넘거나 2점 이하로 나타나 응답한 전체 탈북자들이 매우 강하고 유사한 의견을 나타낸 문항들은 다음과 같은 5개 문항이었다. 즉 “남한 사회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평균 4.13), “남한에서는 돈이 최고인 것 같다”(평균 4.40), “내가 남한에 온 가장 큰 보람은 자녀를 남한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다”(평균 4.35), “정부의 북한이탈 주민 지원 정책 중 의료지원 내용에 만족한다”(평균 4.14),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사회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평균 1.91)였다.

의식조사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분석 절차

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요인들이 실제 자료에서도 유지되는지를 파악하고, 유지되지 않을 경우 실제 자료에서의 의식 요인을 탐색하기 위

Table 2.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조사 문항의 빈도 (백분율) 및 평균 (표준편차)

Item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안 그렇다	전혀 안 그렇다	무응답	Mean* (Std. Dev.)	
V01 나는 남한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	186 (33.7)	206 (37.3)	102 (18.5)	30 (5.4)	11 (2.0)	17 (3.1)	3.983 (.974)	
V02 난한 사회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	273 (49.5)	137 (24.8)	71 (12.9)	30 (5.4)	24 (4.3)	17 (3.1)	4.131 (1.121)	
V03 난한에서는 돈이 최고인 것 같다	311 (56.3)	154 (27.9)	54 (9.8)	9 (1.6)	8 (1.4)	16 (2.9)	4.401 (.850)	
V04 나는 난한 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89 (16.1)	175 (31.7)	185 (33.5)	63 (11.4)	21 (3.8)	19 (3.4)	3.465 (1.028)	
V05 난한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사회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8 (1.4)	25 (4.5)	83 (15.0)	217 (39.3)	200 (36.2)	19 (3.4)	1.919 (.921)	
V06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한 남한 사람들이 있다		116 (21.0)	130 (23.6)	100 (18.1)	105 (19.0)	83 (15.0)	18 (3.3)	3.170 (1.380)
V07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있다		189 (34.2)	114 (20.7)	94 (17.0)	74 (13.4)	61 (11.1)	20 (3.6)	3.556 (1.388)
V08 아무리 난한 사람들과 친해져도 북한에서 친했던 사람들만큼 친해지지 않는다		141 (25.5)	140 (25.4)	93 (16.8)	82 (14.9)	72 (13.0)	24 (4.3)	3.371 (1.378)
V09 학교나 사회에서 다른 난한 사람들과 경쟁하기가 어렵다		123 (22.3)	143 (25.9)	110 (19.9)	97 (17.6)	57 (10.3)	22 (4.0)	3.336 (1.305)
V10 젊은 (10~30대) 난한 사람들의 사고, 행동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117 (21.2)	147 (26.6)	136 (24.6)	94 (17.0)	39 (7.1)	19 (3.4)	3.392 (1.213)
V11 나이 든 (40대 이상) 난한 사람들의 사고, 행동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36 (6.5)	101 (18.3)	154 (27.9)	163 (29.5)	76 (13.8)	22 (4.0)	2.732 (1.129)
V12 내가 북한에서 왔으므로 난한 사회에서 무시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		60 (10.9)	164 (29.7)	110 (19.9)	111 (20.1)	88 (15.9)	19 (3.4)	2.994 (1.277)
V13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을 얻기 힘든 것은 능력 부족보다도 난한 사람들의 편견 탓이다		137 (24.8)	171 (31.0)	110 (19.9)	69 (12.5)	47 (8.5)	18 (3.3)	3.528 (1.246)
V14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49 (8.9)	134 (24.3)	96 (17.4)	134 (24.3)	120 (21.7)	19 (3.4)	2.734 (1.305)
V15 북한이탈주민들끼리 힘과 의견을 모으는 더 큰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48 (26.8)	88 (15.9)	114 (20.7)	96 (17.4)	86 (15.6)	20 (3.6)	3.218 (1.436)
V16 북한이탈주민들끼리의 단체가 생긴다면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136 (24.6)	83 (15.0)	117 (21.2)	96 (17.4)	97 (17.6)	23 (4.2)	3.123 (1.445)
V17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126 (22.8)	152 (27.5)	138 (25.0)	73 (13.2)	44 (8.0)	19 (3.4)	3.456 (1.222)
V18 5년 뒤의 나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살고 있을 것이다		193 (35.0)	169 (30.6)	93 (16.8)	47 (8.5)	26 (4.7)	24 (4.3)	3.864 (1.151)
V19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도시, 동네)에 대하여 만족한다		163 (29.5)	146 (26.4)	149 (27.0)	42 (7.6)	37 (6.7)	15 (2.7)	3.663 (1.185)
V20 현재 내가 사는 집과 내가 쓰는 방에 대하여 만족한다		152 (27.5)	130 (23.6)	135 (24.5)	63 (11.4)	54 (9.8)	18 (3.3)	3.493 (1.290)
V21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 학교)에 대하여 만족한다		144 (26.1)	119 (21.6)	131 (23.7)	56 (10.1)	52 (9.4)	50 (9.1)	3.492 (1.293)
V22 현재 나의 수입 (돈)에 대하여 만족한다		58 (10.5)	91 (16.5)	152 (27.5)	98 (17.8)	116 (21.0)	37 (6.7)	2.761 (1.290)
V23 현재 나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156 (28.3)	133 (24.1)	131 (23.7)	65 (11.8)	51 (9.2)	16 (2.9)	3.519 (1.284)
V24 나는 나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에 만족한다		131 (23.7)	135 (24.5)	127 (23.0)	88 (15.9)	55 (10.0)	16 (2.9)	3.371 (1.292)
V25 현재 나의 여가생활 (또는 취미생활)에 만족한다		88 (15.9)	102 (18.5)	177 (32.1)	90 (16.3)	68 (12.3)	27 (4.9)	3.099 (1.244)
V26 (가정이 있을 경우에만) 현재 나의 가정 생활에 만족한다		162 (29.3)	98 (17.8)	97 (17.6)	46 (8.3)	17 (3.1)	132 (23.9)	3.814 (1.178)
V27 현재 난한에서의 나의 생활 전체에 대하여 만족한다		95 (17.2)	158 (28.6)	173 (31.3)	69 (12.5)	34 (6.2)	23 (4.2)	3.399 (1.117)
V28 내가 난한에 온 가장 큰 보람은 자녀를 난한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다		138 (25.0)	38 (6.9)	22 (4.0)	5 (.9)	10 (1.8)	339 (61.4)	4.357 (1.070)
V29 현재 나의 자녀들의 난한 생활적응에 만족한다		74 (13.4)	53 (9.6)	51 (9.2)	11 (2.0)	9 (1.6)	354 (64.1)	3.869 (1.119)
V30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중 주택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151 (27.4)	123 (22.3)	132 (23.9)	62 (11.2)	63 (11.4)	21 (3.8)	3.446 (1.328)
V31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중 교육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157 (28.4)	156 (28.3)	125 (22.6)	40 (7.2)	40 (7.2)	34 (6.2)	3.676 (1.202)
V32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중 의료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265 (48.0)	141 (25.5)	88 (15.9)	26 (4.7)	15 (2.7)	17 (3.1)	4.150 (1.042)
V33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중 취업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88 (15.9)	89 (16.1)	121 (21.9)	96 (17.4)	128 (23.2)	30 (5.4)	2.833 (1.409)
V34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중 정착지원금 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152 (27.5)	84 (15.2)	126 (22.8)	86 (15.6)	80 (14.5)	24 (4.3)	3.269 (1.418)

Table 2. Continued

Item	매우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안그렇다	전혀 안그렇다	무응답	Mean* (Std. Dev.)
V35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하여 전제적으로 만족한다	122 (22.1)	118 (21.4)	156 (28.3)	73 (13.2)	65 (11.8)	18 (3.3)	3.298 (1.293)
V36 여가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여야 할지 잘 모르겠다	49 (8.9)	87 (15.8)	121 (21.9)	129 (23.4)	146 (26.4)	20 (3.6)	2.556 (1.296)
V37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지 잘 모르겠다	58 (10.5)	88 (15.9)	106 (19.2)	121 (21.9)	159 (28.8)	20 (3.6)	2.558 (1.354)
V38 때로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55 (10.0)	100 (18.1)	84 (15.2)	112 (20.3)	182 (33.0)	19 (3.4)	2.501 (1.390)
V39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한다	89 (16.1)	111 (20.1)	81 (14.7)	106 (19.2)	143 (25.9)	22 (4.0)	2.806 (1.458)
V40 나는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며 산다	158 (28.6)	80 (14.5)	88 (15.9)	92 (16.7)	115 (20.8)	19 (3.4)	3.139 (1.535)
V41 남한 언론매체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	65 (11.8)	68 (12.3)	111 (20.1)	125 (22.6)	161 (29.2)	22 (4.0)	2.530 (1.361)
V42 남북한 대표팀이 축구시합을 한다면 북한을 응원하겠다	71 (12.9)	75 (13.6)	164 (29.7)	73 (13.2)	145 (26.3)	24 (4.3)	2.724 (1.358)
V43 내가 만일 (다시) 결혼한다면 북한 출신 사람과 하겠다	113 (20.5)	58 (10.5)	129 (23.4)	84 (15.2)	125 (22.6)	43 (7.8)	2.902 (1.464)
V44 나의 자녀는 북한 출신과 결혼하기 원한다	53 (9.6)	37 (6.7)	97 (17.6)	82 (14.9)	163 (29.5)	120 (21.7)	2.387 (1.380)
V45 나는 죽으면 북한 땅에 묻히고 싶다	191 (34.6)	43 (7.8)	84 (15.2)	75 (13.6)	132 (23.9)	27 (4.9)	3.164 (1.632)
V46 통일이 되면 남북한 사람들은 쉽게 서로 이해하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80 (14.5)	88 (15.9)	105 (19.0)	147 (26.6)	108 (19.6)	24 (4.3)	2.782 (1.351)

* : 제시된 평균은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전혀 안그렇다'를 1점으로, 무응답은 결측치로 환산하여 계산한 값임.

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의식조사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6개의 의식문항들 중 '통일 후 전망'에 관한 질문 1개(45번)와 무응답율이 높았던 질문 5개(26, 28, 29, 43, 44)를 제외한 40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응답율이 높았던 질문들은 자녀에 관한 질문들과 결혼에 관련된 질문들이었다. 요인분석방법으로는 추축요인분해(principal axis factoring)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Kaiser 기준과 스크리 도표, 누적변량백분율, 해석가능성의 기준을 이용하였다. 요인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요인구조간 상관을 허용하는 사각회전방식인 Direct Oblimin 방식을 이용하였다. Table 3에 요인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요인분석결과, 12개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2개의 요인은 전체변량의 6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과 문항간 상관계수로 개념화되는 형태행렬(pattern matrix)의 부하량(factor loading)이 .25 이상인 문항들을 해당 요인에 영향을 받는 문항으로 결정하였다. 40개 문항 중 어떤 요인에도 0.25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지 않는 문항과 내용상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추후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able 3에서 분석에서 제외된 항목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36개 문항이 12개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요인의 의미

내용적으로 구성한 7가지 영역 중 첫째,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요인분석결과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남한사람에 대한 이해 곤란'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둘째, '탈북자들의 자기인식'은 '남한사람들의 편견', '북한이탈주민 간 단결'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셋째,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주거만족도',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정부지원 정책 만족도'의 다섯 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감' 요인은 요인분석에서도 4개의 문항들이 모두 '가치관 혼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북한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의식'은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경제사정과 전망'은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나타났으며, 일곱째, '통일 후 전망'은 요인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내용적으로 상정한 7개의 요인들은 요인분석을 통한 경험적 요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험적 요인들은 내용적으로 파악한 요인들보다 더 세분화되었다.

의식 요인간 상관

북한이탈주민의 12개 의식 요인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 점수를 산출한 후,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 점수는, 요인점

수가 측정문항의 척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요인과 관련성이 높은 문항들(부하량이 .25 이상인 문항들)을 평균하여 산출하였으며, 이후의 분석에서는 각 요인별 점수를 이용하였다.

의식 요인간 상관계수 행렬이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비교적 높은 상관($r > .3$)을 보이

는 요인들은 '경제적 만족도'와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r=.504$), '경제적 만족도'와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r=.421$), '경제적 만족도'와 '주거만족도' ($r=.446$), '경제적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전망' ($r=.416$), '가치관 혼란'과 '남한사람 이해 곤란도' ($r=.336$), '가치관 혼란'과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r=-.315$), '정부지원정책 만족도'와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r=.315$)이다.

Table 3. 의식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Factor	Item	Loading	Cummu- nali- ties	Eigen- values	Cumu- lative %
경제생활 만족도	V22 현재 나의 수입 (돈)에 대하여 만족한다	.758	.751		
	V17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498	.386		
	V27 현재 남한에서의 나의 생활 전체에 대하여 만족한다	.320	.512	7.297	18.243
	V21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 학교)에 대하여 만족한다	.290	.450		
가치관 혼란	V38 때로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711	.613		
	V37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646	.628		
	V39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한다	.639	.552	3.312	26.523
	V36 여가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여야 할지 잘 모르겠다	.600	.505		
북한이탈주민간 단결	V05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사회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166	.184		
	V15 북한이탈주민들끼리 힘/의견을 모으는 더 큰 단체가 필요하다	.910	.822		
	V16 북한이탈주민들끼리의 단체가 생긴다면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861	.748	2.405	32.536
	V35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하여 전제적으로 만족한다	.813	.835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V34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중 정착지원금 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733	.719		
	V32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중 의료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634	.431		
	V30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중 주택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617	.604	1.756	36.926
	V31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중 교육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511	.394		
남한사람 이해곤란도	V33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중 취업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394	.527		
	V10 젊은 (10~30대) 남한 사람들의 사고, 행동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579	.480		
	V09 학교나 사회에서 다른 남한 사람들과 경쟁하기가 어렵다	.567	.461		
	V11 나이 든 (40대 이상) 남한 사람들의 사고, 행동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538	.462	1.714	41.209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V14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332	.172		
	V08 남한 사람들과 친해져도 북한에서 친했던 사람들만큼 친해지지 않는다	.309	.285		
	V42 남북한 대표팀이 축구시합을 한다면 북한을 응원하겠다	.601	.422		
	V41 남한 언론매체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	.555	.357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V45 나는 죽으면 북한 땅에 묻히고 싶다	.273	.286	1.591	45.187
	V40 나는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며 산다	.239	.174		
	V24 나는 나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에 만족한다	.766	.612		
	V23 현재 나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725	.514	1.374	48.623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V25 현재 나의 여가생활 (또는 취미생활)에 만족한다	.483	.431		
	V07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있다	.536	.413		
주거 만족도	V06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한 남한 사람들이 있다	.502	.603	1.267	51.790
	V20 현재 내가 사는 집과 내가 쓰는 방에 대하여 만족한다	.739	.679		
남한 사회 및 양어 이해	V19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도시, 농촌)에 대하여 만족한다	.695	.580	1.243	54.898
	V04 나는 남한 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43	.353		
남한사람들의 편견	V01 나는 남한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	.533	.372		
	V13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을 얻기 힘든 것은 남한 사람들의 편견 탓이다	.706	.559		
	V12 내가 북한에서 왔으므로 남한 사회에서 무시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	.582	.417	1.037	60.528
미래에 대한 전망	V03 남한에서는 돈이 최고인 것 같다	.232	.148		
	V02 남한 사회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	.469	.422		
	V18 5년 뒤의 나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살고 있을 것이다	.401	.398	1.016	63.068

족도'와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r=.307$), '정부지원정책 만족도'와 '주거만족도' ($r=.401$), '정부지원정책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전망' ($r=.387$), '주거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전망' ($r=.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로, 경제적 만족도,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주거 만족도 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 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로, 가치관 혼란은 남한사람의 이해 곤란도와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와 남한 사람의 이해가 가치관 혼란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한생활 만족도, 가치관 혼란과 관련이 있는 의식요인

남한 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의식 요인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의식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나머지 11개 의식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한 이유는, 12개 의식 요인들이 서로간에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의식 요인들이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와 가지는 고유한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중다회귀분석결과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와 유의한 독자적 관련성을 가지는 요인은 경제적 만족도($p<.001$), 가치관 혼란($p<.001$), 정부지원정책 만족도($p<.05$), 주거만족도

Table 4.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요인간 상관

경제적 만족도	가치관 혼란	북한이탈 주민간 단결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남한사람 이해 곤란도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정신 신체 만족도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주거 만족도	남한사회 및 언어 이해	남한 사람들의 편견	미래에 대한 전망
1 1.000											
2 -.296 [†]	1.000										
3 -.145 [†]	.116 [†]	1.000									
4 .504 [†]	-.181 [†]	-.220 [†]	1.000								
5 -.152 [†]	.336 [†]	.181 [†]	-.079	1.000							
6 -.038	.144 [†]	.170 [†]	-.073	.042	1.000						
7 .421 [†]	-.315 [†]	-.088*	.307 [†]	-.132 [†]	-.017	1.000					
8 .194 [†]	-.192 [†]	.168 [†]	.066	-.159 [†]	.093*	.198 [†]	1.000				
9 .446 [†]	-.089*	-.152 [†]	.401 [†]	-.025	-.022	.290 [†]	.124 [†]	1.000			
10 .188 [†]	-.255 [†]	.032	.069	-.198 [†]	-.100*	.198 [†]	.269 [†]	.110*	1.000		
11 -.250 [†]	.242 [†]	.219 [†]	-.263 [†]	.271 [†]	.144 [†]	-.108*	-.022	-.176 [†]	-.091*	1.000	
12 .416 [†]	-.209 [†]	-.147 [†]	.387 [†]	-.093*	-.111 [†]	.262 [†]	.154 [†]	.326 [†]	.229 [†]	-.249 [†]	1.000

* : $p<.05$, † : $p<.01$, ‡ : $p<.001$

Table 5.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에 대한 의식요인의 중다회귀분석결과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R^2
	B	S.E				
(Constant)	1.464	.388		3.776	.000	
경제적 만족도	.258	.055	.232	4.714	.000	
가치관 혼란	-.181	.040	-.194	-4.470	.000	
북한이탈 주민간 단결	-.015	.031	-.021	-.500	.617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104	.048	.100	2.151	.032	
남한사람 이해 곤란도	-.016	.050	-.013	-.318	.751	.254 [†]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030	.038	.031	.794	.428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061	.038	.067	1.616	.107	
주거 만족도	.099	.041	.108	2.427	.016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076	.050	.062	1.503	.133	
남한 사람들의 편견	.055	.039	.059	1.395	.164	
미래에 대한 전망	.046	.050	.042	.928	.354	

† : $p<.001$

족도($p<.05$)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 수록, 가치관 혼란이 적을 수록, 정부지원정책 만족도가 높을 수록, 그리고 주거 만족도가 높을 수록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의식요인들의 상대적 관련성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산출하였다. 경제적 만족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232$)가 가장 크게 산출되었고, 가치관 혼란($\beta=-.194$), 주거 만족도($\beta=.108$), 정부지원정책 만족도($\beta=.100$)순으로 나타나,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와 경제적 만족도가 가장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음으로 가치관 혼란이 두 번째로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주거만족도와 정부지원정책 만족도가 세 번째로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5).

가치관 혼란과 관련이 있는 의식 요인

가치관 혼란과 관련이 있는 의식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Table 6. 가치관 혼란에 대한 의식요인의 회귀분석결과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R^2
	B	S.E				
(Constant)	2.577	.405		6.362	.000	
경제적 만족도	-.238	.058	-.200	-4.071	.000	
북한이탈 주민간 단결	.021	.033	.026	.633	.527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037	.053	-.033	-.707	.480	
남한사람 이해 곤란도	.285	.052	.226	5.440	.000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111	.041	.107	2.683	.008	.234†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100	.041	-.103	-2.454	.014	
주거 만족도	.070	.044	.071	1.588	.113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159	.054	-.122	-2.934	.003	
남한 사람들의 편견	.099	.043	.098	2.316	.021	

† : $p<.001$

여, 가치관 혼란을 종속변인으로하고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를 제외한 10개 의식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를 제외한 이유는 가치관 혼란이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의 결과이기보다는 원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중다회귀분석결과 '가치관 혼란'과 유의한 독자적 관련성을 가지는 요인은 '남한사람 이해 곤란도' ($p<.001$), '경제적 만족도' ($p<.001$),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p<.01$),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p<.01$),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p<.05$), '남한사람들의 편견' ($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만족도가 낮을수록, 남한사람 이해 곤란도가 높을수록,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가 낮을수록,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가 높을 수록,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을수록, 남한사람들의 편견이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가치관 혼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의 상대적 관련성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산출하였다. '남한 사람 이해 곤란도'의 표준화된 회

Table 7. 직장유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직장유형			F	p
	정규직 (N=132)	계약직 (N=82)	직장없음 (N=144)		
경제적 만족도	3.389 (0.869) ^a	2.957 (0.845) ^b	2.757 (0.947) ^b	17.541	.000
가치관 혼란	2.365 (0.967) ^b	2.729 (1.082) ^a	2.896 (1.131) ^a	8.797	.000
북한이탈 주민간 단결	3.258 (1.356)	3.384 (1.424)	2.983 (1.426)	2.505	.083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3.380 (1.041)	3.418 (0.893)	3.413 (1.020)	.053	.948
남한사람 이해 곤란도	3.104 (0.820)	3.329 (0.860)	3.319 (0.845)	2.826	.061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2.958 (0.987) ^a	2.780 (1.072) ^{ab}	2.648 (1.022) ^b	3.180	.043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3.460 (0.896) ^a	3.443 (0.903) ^a	3.061 (1.110) ^b	6.768	.001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3.542 (0.998) ^a	3.274 (1.131) ^{ab}	3.083 (1.190) ^b	5.883	.003
주거 만족도	3.538 (1.155)	3.530 (1.058)	3.632 (1.106)	.327	.721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3.883 (0.761) ^a	3.802 (0.820) ^a	3.563 (0.844) ^b	5.751	.003
남한 사람들의 편견	3.277 (1.071)	3.463 (1.030)	3.226 (1.129)	1.297	.275
미래에 대한 전망	4.076 (0.934)	3.762 (0.966)	3.962 (0.931)	2.814	.061

Table 8. 종교 유무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종교유무		t	p
	있다 (N=361)	없다 (N=159)		
경제적 만족도	3.072 (0.883)	2.929 (0.966)	1.653	.099
가치관 혼란	2.593 (1.077)	2.630 (1.075)	- .358	.720
북한이탈 주민간 단결	3.159 (1.327)	3.217 (1.436)	- .449	.654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3.524 (0.974)	3.261 (0.941)	2.867	.004
남한사람 이해 곤란도	3.259 (0.831)	3.135 (0.917)	1.519	.129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2.788 (1.052)	2.912 (0.993)	- 1.262	.207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3.340 (1.006)	3.316 (1.036)	.251	.802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3.363 (1.080)	3.389 (1.167)	- .253	.800
주거 만족도	3.579 (1.098)	3.553 (1.106)	.243	.808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3.674 (0.822)	3.893 (0.831)	- 2.795	.005
남한 사람들의 편견	3.271 (1.075)	3.277 (1.082)	- .051	.959
미래에 대한 전망	4.043 (0.901)	3.906 (0.931)	1.585	.114

귀계수($\beta=.226$)가 가장 크게 산출되었고, '경제적 만족도' ($\beta=-.200$)와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beta=-.122$),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beta=.107$),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beta=-.103$), '남한 사람들의 편견' ($\beta=.098$)의 순으로 산출되었다(Table 6).

인구사회적 특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남한에서의 생활 요인 중 '직장유형', '종교유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요인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ANOVA)과 t 검증(t test)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을 사용한 경우, 세부적인 집단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방식의 사후검증(post hoc)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직장유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직장유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요인의 변량분석 결과, '남한 언어 및 사회 이해',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남한생활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가치관 혼란'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경제적 만족도'는 정규직($M=3.389$)이 계약직($M=2.957$)과 직장없음($M=2.7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F=17.541$, $p<.001$). 정규직을 가지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적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가치관 혼란' 역시 직장유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F=8.797$, $p<.001$), 무직($M=2.896$)과 계약직($M=2.729$)이 정규직($M=2.36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을 가질수록 가치관 혼란은 적어지지만, 계약직은 직장 없음과 같은 정도로 가치관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요인의 경우 정규직($M=2.958$)

이 직장없음($M=2.6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계약직($M=2.780$)은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180$, $p<.05$).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는 정규직($M=3.460$)과 계약직($M=3.443$)이 직장없음($M=3.0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F=6.768$, $p<.001$), 직장이 있는 경우에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가 높았다.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은 정규직($M=3.542$)이 무직($M=3.08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F=5.88$, $p<.01$), 정규직을 가지고 있을 수록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남한사회 및 언어 이해'의 경우 정규직($M=3.883$)과 계약직($M=3.802$)이 무직($M=3.5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F=5.751$, $p<.01$), 직장이 있을 수록 남한의 언어와 사회를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종교 유무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요인의 t 검증결과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요인과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t=2.867$, $p<.01$; $t=-2.795$, $p<.01$).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요인은 종교가 있는 경우($M=3.524$)가 종교가 없는 경우($M=3.2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요인은 종교가 없는 경우($M=3.893$)가 종교가 있는 경우($M=3.7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토 론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하였다.

전체적으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만족도는 3.399

정도로 나타나 보통에서 약간 만족하는 정도 사이로 나타났다. 1997년 당시 이루어진 탈북자 연구에서는 만족도를 질문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자신이 남한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 가를 질문하였었는데, 5점 척도(5점은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1점은 전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로 평가하여 평균 3.28이 보고되었었다.²⁾ 탈북자들의 주관적 적응 정도는 자녀들의 남한 생활 적응(3.869), 가정 생활(3.814), 살고 있는 지역(3.663), 살고 있는 집과 방(3.493), 일하는 직장(3.492), 신체적 건강(3.519) 등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심리, 정신적 상태(3.371), 여가생활(3.099), 수입(2.761)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물리적인 생활 조건에 대하여는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측면과 경제 수입에 대하여는 불만족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들의 남한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3.298 정도로 보통에서 약간 만족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지원 정책 중 의료 지원 내용에 대하여 가장 큰 만족도를 보였고(4.150), 교육 지원(3.676), 주택 지원(3.446) 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정착지원금(3.269)은 낮았고, 특히 취업 지원(2.833)에 대하여는 큰 불만을 표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 그 동안 주로 물리적 지원에 집중되어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의 취업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심리적 측면의 지원과 취업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더 이루어지어야 함을 나타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에서 경제적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치관 혼란, 주거만족도,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남한에 들어와 살면서 그들이 느끼는 경제적 만족도가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 만족도에 깊게 영향을 받고 있고, 가치관 혼란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정부 지원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지원이 탈북자들이 당연히 받아낼 수 있는 지원이 아니라, 통일을 바라는 일반 국민들이 힘들게 일하여 번 돈으로 낸 세금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에 있어 “남한 사회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평균 4.131)의 평균 점수가 매우 높게 나온 것은 이

들의 남한에 대한 인상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탈북자들은 남한이라는 사회가 북한과는 달리 출신 성분에 의하여 그들의 일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매우 큰 인상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인다. 이것은 그들이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큰 긍정적 자극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돈이 최고인 것 같다”(평균 4.401)의 점수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탈북자들이 보는 남한 사회는 철저히 돈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그들에게 더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야 한다는 자극이 되는 동시에, 남한의 모든 현상을 돈으로만 해석하고 돈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부정적 측면을 가지게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에서 이러한 점이 좀더 통합적으로 다루어지어야 함을 보여 준다 하겠다.

탈북자들은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사회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항목에 평균 1.919의 반응을 보였다. 즉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탈북자들은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 스스로 남한 사회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3.465 정도로 표한 것과 비교하면, 향후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돋는 것이 통일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탈북자들의 가치관 혼란이라는 현상이다. 이러한 가치관 혼란은 “여가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여야 할지 모르는 것”,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 지 모르는 것”,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운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게 사는 것인지 고민하는 것” 등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이것의 응답은 모두 평균 2.501~2.806점 정도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담한 문항들이다. 그러나 이것에서 ‘그렇다’라는 응답을 강하게 한 사람들은 요인간 상관관계에서 가치관 혼란이 높을수록 남한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곤란하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며, 경제적 만족도가 낮고,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가 낮고, 남한 사회 및 언어이해가 낮고, 남한 사람들의 편견이 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가치감의 혼란은 탈북자들의 남한 생활 적응과 만족감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자들이 가치감을 안정되게 잘 가지도록 돋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하나원 교육이나 기타 비정부기관들의 탈북자 지원 활동에서 좀더 주의를 집중하여야 할 내용이 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 인간이 이러한 가치감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종교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 응답자의 69.4% 인 361명이 종교가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많은 탈북자들이 종교에 대하여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사이에 가치감 혼란 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이들의 가치감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많은 경우 종교 기관이 출석하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 등을 해주고 있어, 탈북자들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러한 지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종교에 참석하고 있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수 있다. 둘째, 탈북자들이 종교를 가진다 할지라도 아직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종교가 이들의 내면의 가치관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질문이 단순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여부를 묻기만 하여, 이들이 단순히 종교 기관의 예배에 참석만 하는 것인지, 이들이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심리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것인지는 구분을 하지 않고 본 통계가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본 연구 결과는 종교 기관들이 탈북자들의 이러한 내적인 갈등과 가치관 혼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물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심리적, 내적 안정감과 가치감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는 남한 언어 및 사회 이해에 있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더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고,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하여는 더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남한에 들어 온지 얼마 안되는 탈북자들은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사람들은 상당 수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의한 결과로 보여졌다. 즉 남한 사회 정착 초기일수록 국가의 지원 정책에는 만족하고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종교 기관들은 이들 탈북자들이 좀더 남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돋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부가 탈북자들의 의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직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한 언어 및 사회에 대한 이해도 더 높고,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만족도와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도 더 높고, 가치관 혼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 이

들이 직장을 가지는 것이 단순한 수입원을 가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모든 항목에서 응답 점수가 정규직-계약직-무직 순서 그대로 나타나, 직장이 없는 탈북자들에게는 계약직 직장이라도 가지도록 돋고, 일단 계약직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정규직 직장을 가지고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에서 가치관 혼란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이 결과만으로는 가치관 혼란과 직장 유무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알 수 있고, 그 원인과 관계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치관 혼란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을 가지는데 더 어려움이 있고, 반대로 직장이 없을수록 가치관 혼란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모두가 탈북자 이해와 지원에 있어 중요함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한다. 첫째, 향후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대한 지원은 물리적 생활 조건 지원에서부터 좀더 심리적, 정신적 안정감을 가지고도록 하는 지원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탈북자들의 직장, 특히 정규직으로 직장을 가지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이들의 만족도 전체와 궁정적인 사회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탈북자 중 가치감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적응은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직은 탈북자들의 종교 생활에 이들의 가치감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종교기관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더 적극적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탈북자들의 의식은 매우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일괄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지적은 향후 남한 사람들에 대한 통일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동시에 남한 사회를 지나치게 돈 위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등의 협소하고 왜곡된 남한 사회 이해를 탈북자들이 하지 않도록 하는 통

합적이고 균형 잡힌 사회 이해를 위한 탈북자 교육이 필요하다.

중심 단어 :북한·이탈·적응.

■ 감사의 글

본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정부 기관과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그리고 설문에 응해주신 탈북자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REFERENCES

- 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서울:2003.
- 2) 민성길, 전우택, 윤덕용. 탈북자와 통일 준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2003.
- 3) 강구섭. 북한 이탈 주민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 개발 (석사논문). 서울: 성균관대:1999.
- 4) 김영수, 정영국. 탈북 귀순자 남한 사회적응실태조사. 통일 연구. 서울: 통일 연구원:1996.
- 5) 독고순,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 주민 적응 연구 (박사논문). 서울: 연세대학교:1999.
- 6) 박희정. 북한이탈 여성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사례 연구 (석사논문). 서울: 가톨릭대:1998.
- 7) 오혜정. 귀순 북한 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석사논문). 서울: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1995.
- 8) 전우택, 민성길, 이만홍, 이은설. 북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7;36:145-160.
- 9) 전우택, 윤덕룡. 2001년도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 조사 보고서. 서울: 북한이탈주민후원회:2001.
- 10) 정유선. 탈북 귀순자의 적응과정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방식 (석사논문). 서울: 서울대:1998.
- 11) 이소래. 남한 이주 북한 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서울: 이화여대:1997.
- 12) 이장호. 북한 출신 주민 (탈북자 포함) 심리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성곡논총 1997;28:739-789.
- 13) 이장호, 김용범, 김경웅.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 방안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 개발원:1998.
- 14) 조영아. 북한이탈주민의 자아방어기제 연구 (박사논문). 서울: 연세대:2003.
- 15)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1997;1:109-168.
- 16) Lin KM, Masuda M, Tazuma L. Adaptational problems of Vietnamese refugees. Part III. Case studies in clinic and field: Adaptive and maladaptive. The Psychiatric J of University of Ottawa 1982;7:173-183.
- 17) Berry JW.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London, Sage:1976.
- 18) Khoa LX, Van Duesen JM. Social and Cultural customs: Their contribution to resettlement. J Ref Res 1981;1:48-51.
- 19)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2000. p.82-84.